

동아시아 경제지역협력국 해운회사 설립 추진

동아시아 경제지역협력국인 BIMP-EAGA(Brunei, Indonesia, Malaysia, Philippines-East Asean Growth Area) 가입국들이 브루나이의 민간투자자와 함께 공동으로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
이 공동협의체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, 올 연말까지 2척의 선박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으나, 선박 종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.

이 지역 국가들은 저렴하고 편리한 운송수단 확보를 통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운송비용 절감으로 지역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.

새로 신설되는 해운회사는 초기에는 역내 운항을 하고,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운항을 확대할 계획이다.

협약 당사국 정부는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만간 회담을 통해 역내 운임을 승인할 방침이며, 선사 설립에 들어가는 초기자본은 브루나이 민간투자자가 투입할 계획이다.

BIMP-EAGA 지역은 최근 들어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 경제협약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고, 브루나이의 다루살람(Darussalam), 인도네시아의 술라외시(Sulawesi)와 칼리만탄(Kalimantan), 말레이시아의 사라왁(Sarawak)과 라부안(Labuan), 필리핀의 민다나오(Mindanao)와 팔라완(Palawan) 등 특정 지역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탱커, 벌크선, 가스선 등 신조선가 강세 지속

신조선시장에서 탱커를 비롯하여 벌크선, 가스선의 전 선형 선가가 지속적인 수요확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.

지난 2월 하순부터 신조발주가 활발한 30만 DWT급 대형탱커 VLCC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11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선박의 척당 선가는 1억1,800만달러로 지난 2월 초순에 비해 1.7% 가량 상승했다.

또한, 선박수급이 타이트한 17만DWT급 철강원료선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은 6,000만달러, 탱크용량 8만2,000입방미터의 대형 LPG(액화석유가스)선인 VLGC는 9,200만달러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.

조선시장 관계자에 의하면, 현대중공업은 최근 VLCC 11척에 대한 수주가 내정된 상태인데, 이 중 하이스펙의 5척을 제외한 6척의 선가는 척당 1억1,8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최근에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아람코(Aramco)의 해운부문 베라인터내셔널사로부터 VLCC 6척(2008년 1/4분기-2009년 4월 준공예정)을 척당 1억2,940만달러의 고가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는 달리, 신조선시장에서 운임하락의 영향이 현저한 컨테이너선의 선가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.